

# 축제와 일상

## Festival and Everyday

시편 95:1-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9월 30일 설교

1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3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4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오라. 우리가 곱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8이르시기를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맛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9그 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10내가 사십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 전통명절 추석

오늘이 추석입니다. 여기서야 별 느낌이 없지만 한국은 설날과 함께 민족대이동이 있는 명절, 축제일이지요. 흩어져 살던 식구가 모입니다. 모이면 먹고 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가정불화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명절 일이 주로 부역일이다 보니 일은 여자가 다 하고 남자는 술 마시면서 화투놀이만 합니다. 전업주부라도 힘들 텐데 요즘은 여자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한테만 일을 시키고 남자들은 놀기만 하니 제가 여자라도 그건 용납이 안 되지요. 게다가 여자도 여자 나름이라고 시누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며느리는 부역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는 그런 조선스러운 집이 아직도 있다고 하니 열불이 안 나면 그게 이상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추석이나 설날 지나고 하는 명절이혼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사회가 보다 평등한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오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도 토요일 오후에 전화를 드리는데 어제는 “아직 출발 안 했냐?” 하고 농담을 하십니다. 제 형은 부모님 가까이 살고 있고 서울 사는 동생도 그 복잡한 고속도로를 달려 부모님을 뵈러 곧 도착한답니다. “비행기가 좀 막히네요” 하고 농담으로 받았더니 “고속도로는 막혀도 하늘은 뽕 뚫려 있어!” 하십니다. 보고 싶다는 말씀이겠지요. 명절인데 못 찾아보니 죄송하지요.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가 어른께 그저 면목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아들이 보고 싶겠지만 안 오나 하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추석하고 설날 그리고 가끔은 크리스마스에 그런 농담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에는 모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큰 명절로 설날하고 추석이 있는데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고 추석은 농사지은 걸 거두어 기뻐하면서 하늘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뭔가 생각도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챙겨보고 또 사람 마음에 종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면서도 그저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참 뜻 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는 모입니다. 온 식구가 다 모입니다. 결혼을 해 집이 두 개가 된 사람들은 하루는 남편 집으로 또 하루는 아내 집으로 바쁘게 다닙니다.

### 뜻을 새롭게

모이면 뭘 합니까? 먹고 놀고 제사지낸다 했는데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같이 먹는 건 같이 사는 거지요? 노는 건 일의 반대인데 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일입니다. 놀면서 일하는 뜻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른들께 인사도 올리고 아이들 자란 것도 보여드리고 좋은 말씀도 들읍시다. 제사라는 것도 방식에 문제가 있어 그렇지 어른을 공경하고 누군가를 섬기겠다 하는 태도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모이면 한 개인으로 바로 사는 법도 배우지만 한 식구라는 걸 느끼고 깨달습니다. 따로 살아도 식구 맞지요. 하지만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사진도 찍고 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구나, 하고 새롭게 느낍니다. 때로는 몇 다리 건너 친척하고 인사도 나누면서 내 가족이 이렇게 더 큰 가족에 속했구나 하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함께 어울려 사는 것인 줄을 깨달습니다.

## 축제와 일상

우리 삶에는 축제가 있고 일상이 있습니다. 일상은 날마다 사는 삶이지요. 축제는 그 일상을 잠시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을 쉰다고 일상에서 멀어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축제가 있기에 일상이 더욱 일상다워집니다. 추석에는 직장이 며칠 문을 닫고 모두들 집으로 갑니다. 양쪽 부모님도 뵙고 형제자매들이 자식들 주르르 거느리고 만나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인사 나누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지쳐 며칠 쉰 다음 다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긴 있지요. 하지만 일만 하다 보면 일을 왜 하는지 본 뜻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동물도 아닌데, 물을 한 잔 마셔도 뜻을 따라 하는 게 사람인데,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왜 하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잠시 쉬는 겁니다.

뭐가 일상이고 뭐가 축제입니까? 일이 일상이라면 끼니마다 밥 먹는 건 축제입니다. 일을 쉬지요. 먹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쉬고 먹는다고 일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먹어 힘이 생기면 또 일을 합니다. 먹으면서 일에 대해 생각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뒤에는 집으로 퇴근합니다. 그 경우 직장생활은 일상이 되고 집은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은 즐거워야 됩니다. 밥도 먹고 식구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텔레비전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는 모든 게 축제입니다. 일상을 쉬고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일상의 뜻을 새롭게 하면서 내일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상과 축제는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지만 주 단위로도 이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한 주간이 일상이라면 주말은 축제입니다. 연 단위로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설날하고 추석, 이 미국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런 날이 되겠지요. 이런 날에는 모입니다. 모여서 한 해 동안의 삶에 감사드리고 우리 삶이 보다 뜻 깊게 이어지도록 서로 이야기를 통해 격려를 나눕니다.

축제라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쉬고 일상과 다른 걸 하면 그게 축제입니다. 축제 때문에 몸과 마음이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축제는 즐겁습니다. 왜요? 일을 안 하니까요? 아니지요. 내 삶에 뜻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축제와 일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일상이 남에게 축제가 되고 남의 일상은 나에게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게 일상인 사람은 축제 때 공을 잡니다. 운동하는 게 일상인 사람은 축제 때 책을 보며 쉬지요. 주부가 명절에도 밥하고 설거지해야 된다면 그건 축제가 안 되지요. 평소 안 하는 남자들이 나서서 튀김도 태워보고 설거지하다가 그릇도 깨고 그래야 축제가 되지요.

## 창조와 구원

축제와 일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루 일하신 다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렇게 날이 바뀌는 동안에는 아무 것도 안 만드셨습니다. 쉬셨다는 말은 없지만 적어도 그 시간에는 일을 안 하신 거지요. 그 날 그 날 하루 일을 마음에 들게 끝내신 다음 쉬셨습니다. 그렇게 옛세를 되풀이하신 다음 일곱째 날 또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복된 날로 만드시고 우리도 그렇게 옛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 하셨습니다. 일상만 계속되면 안 되고 날마다 저녁이 와야 되고 매주 주말이 와야 됩니다.

축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꼭 지켜야 할 계명을 열 개로 요약해 주실 때 안식일 계명도 넣으셨습니다. 별 설명 없이 이래라, 저러면 안 된다 하신 계명도 많은데 이 안식일 계명은 설명도 아주 길게 다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옛세 동안에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쉬는 게 아니고 식구들도 우리 집 종들도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도 심지어 동물까지 다 쉬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나 즐기자고 남에게 일을 시키는 건 축제가 아닙니다. 일도 같이 하고 쉬기도 같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일 쉰다고 축제가 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축제는 가만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과 다른 일, 일상이 아닌 일을 하되 그 일상에 뜻을 주고 그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쉬어라 하고 명령하실 때 쉬어야 할 다른 이유도 함께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한 번씩 나오는데 다른 계명은 거의 같습니다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천지창조 때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 하셨지만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노예생활을 하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 주었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일을 안 하고 가만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즐기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일상과 축제가 반복되는 우리 삶의 패턴에 영적인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축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그 뜻이 있습니다. 힘든 세상살이를 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쉼, 안식, 그걸 맛보는 게 축제입니다. 이 세상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살아가는 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쉬워지

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안식일, 곧 축제의 참 뜻을 밝혀줍니다.

## 구원과 감사

일하고 쉬는 패턴이 되풀이되는데 그건 그림자입니다. 안식일도 그림자입니다. 참 뜻은 힘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기 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쉬는 거. 한 주간 애쓴 다음 주말에 쉬는 거. 몸도 마음도 쉬지요. 일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참 안식이 못 됩니다. 그렇게 쉬 다음 다시 고생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쉬고 일만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요. 하지만 그저 일의 양이나 일하는 시간만 조금 줄어든 뿐 내 일상에 뜻을 주는 참 안식은 거기 없습니다.

참 안식, 정말 즐거운 축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쉼이 뭔지, 안식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안식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 삶을 축제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이 축제가 되는데 그 축제는 내 일상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에 매 순간 순간이 축제처럼 되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저녁이라고 또 주말이라고 축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말이 축제가 되는 이유는 주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모임이 주말에 몰려 있어 더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 닷새 동안의 일을 마치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몇 사람 안 모여도 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쥐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평화, 안식을 맛봅니다. 토요일 기도회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일상에 뜻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왜 드립니까?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참 안식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시 들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괴로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값진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갖고 세상에 들어가 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일상은 더 이상 괴로운 세상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이 남들이 말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오히려 축제 같은 그런 일상이었다는 걸 주말에 모여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축제는 일상에 뜻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 축제 때마다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얼마인 자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답게 일상을 축제처럼 즐기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목상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보아 주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 어머니로 아들 딸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해 사람을 섬기고 또 돈을 벌어 가정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배할 때 깨닫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다시금 세상으로 가 괴로운 노동 아닌 즐거운 노동, 사랑의 노동을 하게 됩니다.

## 축제와 일상

제가 방위 출신이라 군대 이야기를 감히 못 합니다만 훈련을 받을 때 자주 쓰는 구호가 있지요. 훈련을 실전같이 실전을 훈련같이. 훈련에는 실전 같은 위험이나 긴장이 없지만 실전이라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할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실전에 가서는 겁내지 말고 마치 훈련받듯 자신 있게 싸우라는 말이겠지요. 일상과 축제가 반복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상을 축제같이 축제를 일상같이. 예배를 생활같이 생활을 예배같이.

쉽게 말해 예배와 생활의 일치입니다. 한 주간 괴로운 세상에서 못 죽어 살다 왔다면 예배도 참 예배, 즐거운 예배가 못 될 겁니다. 축제 같은 일상을 살아야 축제도 진짜 축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주간을 산 사람들이 모임 때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축제 같은 일상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열심히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한 번에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받는지 몇 달을 버티기도 합니다 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자주 해야 된다 하십니다. 예배를 매주 여러 번 드리는데 히브리서는 날마다 서로 권하라 가르칩니다. 추석 이야기로 시작해 놓고 적용이 참 좋지요? 교회생활에 열심을 내자, 이

것도 우리가 추석 때 배워야 될 가르침 맞습니다. 그래야 축제가 일상을 뜻을 주거든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람찬 월요일을 약속해 주고 한 해 추수를 마친 다음에는 다음 해 씨를 잘 뿌리도록 힘을 줍니다.

## 우리의 책임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참 축제도 알고, 그래서 축제와 일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즐기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책임도 큼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매주일 축제를 즐깁니다. 예배로도 즐기지만 봉사로도 즐깁니다. 몸이 쉬는 게 참 안식이 아닌 줄 알기에 몸을 바쳐 봉사를 합니다. 여선교회, 찬양 팀, 교사, 안내, 재정, 관리, 그 밖에 모든 봉사자들이 한 주간 안 하던 일도 하고 때로는 날마다 하는 일을 주일까지 하루 더 하기도 하지만 주 예수 안에서 축제로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뜻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하는 그 일마저도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힘들게 봉사하고도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 되고 명절에는 무조건 놀아야 되는 줄 압니다. 다 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 싸움이 나고 사니 못 사니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안식이 뭔지 압니다. 참 축제를 즐길 줄 알고 그 축제에서 힘을 얻어 일상까지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주면서 즐기면 사람들이 축제가 뭔지 다시금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르는 진짜 축제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반 이상 된 겁니다.

이 축제를 통해 교회는 큰 가정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돈 없고 힘 없어 당하는 일이 하나 둘입니까? 죄가 가져온 여러 고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더 힘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나는 즐겁고 남은 괴로운 건 진짜 축제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야 됩니다. “오라, 예배하자!” “같이 하자!” 아납니까? 너도 나도 다 즐거워야 진짜 축제고, 놀아도 즐겁지만 일을 해도 즐거운 게 축제인 줄 알기 때문에 모입니다. 모여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 산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것 삼아 양처럼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 우리의 소망

우리는 다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눈물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이니 일상은 없고 축제만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축제와 일상이 다 있겠지만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축제가 일상이고 일상이 축제인 삶,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연습하고 흉내 내는 그런 삶이 백 퍼센트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안식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다 그 안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잘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 그걸 따끔한 경고를 담은 시로 우리에게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출발은 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끝까지 잘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축제와 일상을 하나로 엮어가는 방법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축제에서는 우리 일상이 얼마나 축제처럼 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축제의 참 맛을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혹 남들처럼 괴롭게 살았다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못 살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갈 또 한 주간은 정말 이 축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안식을 백 퍼센트 이루어주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일상을 축제로 바꾸어 잘 살아가겠노라 마음먹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많이 하셨지요?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 살 한 주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안식은 참 안식을 생각하는 계기입니다. 밥 먹는 게 축제이니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 마다..... 어려움도 닥치지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퇴근할 때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과 일치했는가? 저녁에 쉴 때도 몸이 쉬는 이걸 그림자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나중에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금 모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축제와 일상이 같아지는, 그래서 천국생활에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